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강진군, 병영면 불금불파사업 설명회

병영면 이장단,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30여 명 참석
매주 금·토요일 저녁 병영시장 일원서 야시장 열어



강진군은 지난 23일 병영면사무소에서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병영면 이장단(단장 김규현),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금불파 사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계획과 추진 실적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불금불파'는 매주 금·토요일 저녁, 병영시장 일원에서 야시장을 열어 불고기 등 지역특화 음식 판매대를 운영하며 각종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군은 '하멜 맥주와 커피' 등 콘텐츠 개발 사

업과 '병영 마을 호텔 신축', '한개울 물길 습터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1박 2일 동안 강진에서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규현 이장단장은 "병영시장 상인과 주변 주민들에게 불금불파 사업을 더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업을 통해 병영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성수 인구정책과장은 "병영면이 간직한 전라병영성, 하멜전사관, 병영한글목 등 문화·관광 자원들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다"며 "불금불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병영한글목 내에 빈집을 정비해 한옥호텔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23년 1월 6일까지 불금불파 야시장에 참여할 매대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메일(baufood@naver.com)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달밤야시장 추진단(☎062-400-4848)으로 문의하거나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성과 '우수기관' 2관왕 쾌거

모바일 헬스케어·AI·IoT어르신 건강관리 부문

진도군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성과 대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등 2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최근 열린 성과대회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평가 결과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전국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 보건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평가이다. 군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동량계, 체중계 등 스마트 건강관리기기를 지원했고 기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모바일 헬스케어는 만성질환예방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APP)



을 통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가들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자가건강관리 향상과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걱정 없는 행복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김성 장흥군수 "월급 10% 장학금 내놓겠다"

인재육성장학금 500만원 기탁... "인재육성 마중물 되겠다"



김성 장흥군수가 민선8기 임기 동안 받는 급여의 10%를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6일 첫 기탁식을 갖고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으로서 항상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며, "군수와 장학회 이사장으로 마땅한 도리를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재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보험금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모습과,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장학금을 쾌척하는 지역민을 지켜봤다"며, "이러한 선의를 가진 군민과 함께 지역 인재육성의 마중물이 되

겠다"고 밝혔다. 김성 군수는 민선8기 공약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과 기금조성 확대의 의지를 밝혔다. 현재 154억 원 규모의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기금은 임기 내 2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확보한 기금은 해외 비전캠프, 역사문화 탐방, 장학생 선발,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장흥군 중고생 학습 장려금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교육부담을 덜 수 있는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 군수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비전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김 군수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100회 이상 5000명이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전교육과 강의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김성 군수는 "청소년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란 인재들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군민·관광객 안전 위해 '해맞이 행사' 취소

완도군은 매년 1월 1일 다도해일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정정안도 해맞이 행사'를 '21년과 '22년에 이어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행사는 취소됐지만 다도해일출공원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완도타워 및 다도해일출공원은 개방하고 응급·소방·경찰 등 안전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단, 안전상 위험이 있는 봉수대와 일출공원 화장실 뒤 잔디밭 일대는 폐쇄하고, 완도타워는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해맞이 행사는 취소하지만 다도해일출공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평가 '대상' 수상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지역 먹거리 지수 A등급 '성과 탁월'



해남군이 2022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산물 농식품유통 업무평가는 농특산물 판촉과 유통, 농식품산업 기반구축 및 품질관리, 쌀 판매와 브랜드 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전국단위 공모 선정 등 총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해남군은 올해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등

농식품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지역 먹거리 지수 A등급, 원예산업종합평가 A등급, 친환경쌀 미국 수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월등한 성과를 거두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에는 1,100만원 상사업비와 함께 1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병현관 해남군수는 "대표 농산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해남2030 푸드플랜의 착실한 추진, 해남미소와 로컬푸드를 통한 효과적인 농산물 마케팅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는 배추, 고구마 등 대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를 넘어 해외수출을 통해 판로확대와 농가소득증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